

복식조형의 공간적 특질에 관한 연구 - I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과
조교수 김혜연

目 次

I. 서론	IV. 복식조형의 특질
II. 복식조형의 공간적 체계	1. 기본개념과 원리
1. 인체의 특성	2. 공간조직
2. 형태-공간으로서의 복식	V. 결론 및 제언
III. 복식조형의 공간지각적 영역	참고문헌
1. 지각개념과 체계	ABSTRACT
2. 복식조형의 지각적 특성	

I. 서론

조형은 세계를 인간의 사고에 적응시키는 동시에 체험을 확장시킨다. 또한 모호한 대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해 객관적 실체로 전환시키는 작업이다. 복식조형의 체계는 인간·공간·복식의 3인자에 의해 성립된다.

조형공간이 조형주체인 인간에 의해 직관적 혹은 의식적 사고에 의해 조직되나, 특히 복식은 그 공간조직이 인체를 대상으로 인체와 관련해 이루어지므로 신체공간의 특성을 필연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요소에 관한 인식이 요구된다.

인간은 가동적이다. 또한 지각자인 동시에 지각 대상이다. 즉, 감응적이며 가시적이다. 이러한 교환체계를 기초로해 복식조형특유의 지각환경구조가 성립된다. 시지각적 사고과정은 미적체험을 유도한다. 이것은 하나의 전(前)경험과 전인식으로서 공간지각에 투입되어 통각작용을 조절하고 새로운 공간의 조직과 평가에 작용을 가한다.

본 연구는 복식조형의 공간적 특질에 관한, 연구의 1차적 기초연구단계로서, 형태요소를 중심으로 첫째, 인체의 조형적, 운동역학적 특성과 복식의 형태-공간으로서의 측면을 고찰하고 둘째, 복식조형에서 지각적 원리를 연구하여 그 특질을 규명함으로써 조형주체인 지각자로 하여금 논리적이고 조직력있는 복식의 형태-공간계획을 구축하도록 하고 공간조직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합목적적인 조형공간을 사고하는 기초원리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에 목적을 둔다.

미적측면에서 복식은 인간의 움직임속에서 완성되며, 움직임 속에서 기능-구조적 평가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인간의 동적 특성에 관한 인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복식의 「unwearables」 개념은 제외함을 부언한다.

II. 복식조형의 공간적 체계

인간은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일정한 공간을 점유

한다. 이러한 공간은 형태에 작용을 미치는 구조 체계이며,¹⁾ 공간체계로서의 질서, 관계, 인간을 향한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의 場으로서의 「개념적공간」뿐 아니라, 인간이 구체적으로 지각하고 경험하며 조작할 수 있는 「물리적·시각적 공간」을 의미한다. 인간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공간을 경험하며, 공간행동은 공간을 규정하고 공간유형을 결정한다. 복식조형과 밀착된 공간유형으로서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이 있다. 개인적 공간은 개체가 움직이는 주변공간을 의미하며 주체는 한 사람의 인간이다. 문화에 따라 개인적 공간의 기준은 다르다. 개인공간은 한 구획이면서 이동과 움직임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복식은 개인공간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개인공간은 복식에 의해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복식조형의 공간적 체계는 인간의 조절활동이 구체적으로 영위되는 시각적 개념의 공간의 체계이며, 그것은 공간·인간·복식의 3가지 요소로 성립된다. 복식조형은 이 세가지 요소의 상호관계성을 조절하여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질서의 미적가치를 갖는 공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1. 인체의 특성

인간의 신체는 가시적이며 동시에 가동적이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감응적이다. 다시말해 「보는 행위」의 신체이자 「가시적」 신체인 것이다. 메를로 폰티가 말하는 신체가 갖는 「교환의 체계」는²⁾ 바로 이러한 점에서 출발한다. 즉, 신체의 생명화와 존재성은 보는 행위와 보여지는 것, 만지는 행위와 만져지는 것, 느끼는 행위와 느껴지는 것 등

일종의 상호교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복식조형은 그 공간조직이 인체와 관련해 이루어지므로 인간요소의 인식이 필수적이다. 이에, 인체를 조형적 측면과 운동역학적 측면에서 조명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도록 한다.

(1) 조형적 측면

고대 그리이스인들은 인체를 객관성, 균형, 조화의 모형(母型)으로 간주했다.³⁾ 또한 신체는 정신영역의 발생적 공간(natal space)이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모든 공간들의 모태이다.⁴⁾ 이는 인간이 조형의 주체이자 조형예술에 있어서 척도의 규범이 되기 때문이다.

인체는 형태 분석시 간결한 기하학적 3차원의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기하학적 형태들의 조합이다. 일반적으로, 형과 형태라는 용어에서 기하학적인 형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며, 실제로 인체와 복식을 구성하는 것은 기하학적 형이나 형태 및 이들의 변형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형과 형태는 복식형태 분석에 유효하다.⁵⁾

인체의 기본 구성 단위는 체중을 지탱하여 체중을 이전시키는 하부구성 단위와 행위를 탐색하고 조절하며 의사표시의 기능을 갖는 상부구성 단위가 있다. 인체의 신체결합시스템(Body Linkage System)으로서 골격의 접합부는 기본적으로 ① 사방식 접합, ② 경첩식 접합, ③ 사방-경첩 복합식 접합의 관절접합 방식에 의해 구성되며⁶⁾ 접합부에 연결된 근육을 통해 가동성이 부여된다. (표 1)

이러한 접합부는 신체상에 일련의 분절점을 형성해 인간적 비례의 기초를 제공한다. 모든 형과

1) Stevens(P. -S.), *Les forms dans la nature*, Seuil, Paris, 1978. p.57.

2) 메를로 폰티(오병남 역), *현상학과 예술(Phenomenology and Art)*, 서광사, 1983, pp.292~293.

3) Bloomer(C. -M.), *Principles of Visual Perception*, N.Y., 1976, p.124.

4) 메를로. 폰티, op. cit., p.315.

5) Davis(M. -L.), *Visual Design in Dress*, London, 1980, p.70.

6) Bartenieff(I) & Lewis(D), *Body Movement Coping with the Environment*, N.Y., 1990,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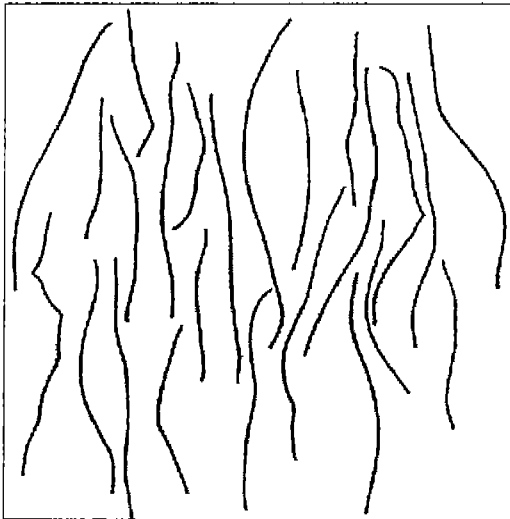
〈표 1〉 신체에 운동을 부여하는 관절 집합 방식

	종류	기능	부위
관 절 집 합 방 식	경첩식	굽히기/펴기	무릎, 팔꿈치, 발목
	추축식	회전	상박 관절 척추
	계란형	굽히기/펴기 내전/외전	손목
	안장형	굽히기/펴기 외전/내전	엄지 손가락
	사방식	굽히기/펴기 외전/내전, 회전	힙, 어깨
	활주식	굽히기/펴기 외전/내전	손가락, 발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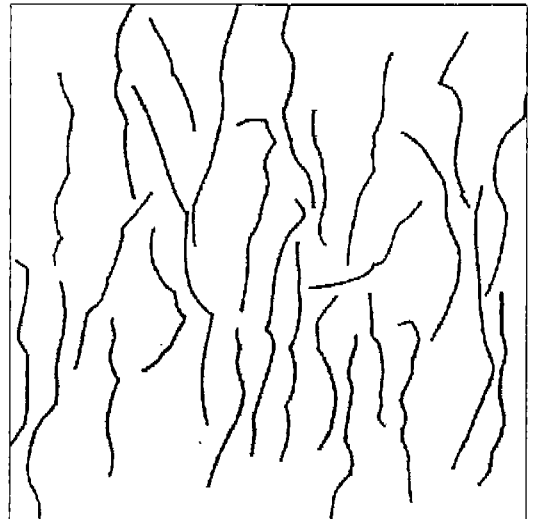
형태는 전적으로 구조에 의존한다.⁷⁾ 복식의 형태는 인체라는 구조적 근거에 의존한다. 조형물의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요소중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구조이다. 구조의 견지에서 분류되는 형태의 두가지 타입 즉 ① 골조적 형태(skeletal form)와 ② 덩어리 형태(mass form)중, 인체는 이 두가지 특

성이 결합된 유기적 형태로서, 생명력이 내재된 내부가 충만한 덩어리이다.

인체의 형태적 특징은 골격이라는 지지대에 의해 기본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근육층에 의해 특징적 윤곽과 표면탄력을 갖는다. 윤곽은 형태의 주특성으로서, 내부와 외부로부터 행사되는 힘들에 의해 위치를 취한다.⁸⁾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힘과 골격축이 평면형의 윤곽을 암시하는 것과 똑같이 그것들은 훨씬 더 뚜렷하게 3차원 형태의 윤곽을 결정한다.⁹⁾ 인체의 윤곽선은 ① 신체동작, ② 시각방향에 따라 무한히 다양한 표정을 갖는다. 또한 골격과 근육의 유연성 정도, 근육 조직의 조밀한 정도에 따라 미묘한 변화가 연출되며 내부 공간의 심리적 분위기도 전달한다. (그림 1)은 근육의 긴장과 이완에 따른 신체의 부분적인 윤곽선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서 전자가 완전한 곡선을 이루는데 반해 후자는 스칼라핀 곡선이 지배적이며 선의 경로가 다소간 급격해 역동성이 지각된다. 윤곽, 크기, 위치, 색채, 질감, 시각적 관성(집중도



a. relax (축도 : 1/10)



b. tension (축도 : 1/10)

(그림 1) 근육의 긴장과 이완에 따른 신체윤곽선 비교(부분)

7) Collier(G.), *Form, Space and Vision*, Englewood Cliffs. N.J., 1963, p.59.
 8) Ibid, p.110.
 9) Davis(M. -L), op. cit., p.72.

와 안정도)등의 형태의 시각적 특징을 결정짓는 요소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보는 조건 즉, ① 우리의 시각, 조망, ② 형태와의 거리, ③ 조명상태, ④ 형태주변의 시각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¹⁰⁾

형태의 표면은 ① 정적표면, ② 동적 표면으로 분류된다. 인체의 표면은 불규칙한 동적 표면이다. 가변적 표면은 인체와 복식의 공통적 표면 특성으로서 인체는 능동적 움직임, 복식은 수동적 움직임을 갖는다. 똑같은 가변적 표면일지라도 구성소재에 따라서 표면의 시각효과는 각각 상이하다.

인체표면은 오목면과 볼록면의 연속체이며 복식은 표면의 볼록부분에 의존해 지지된다. 오목부분과 다소간의 표면탄력성 역시 착의(着衣)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인체의 볼록부분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는 어깨뼈, 골반, 힙근육(gluteus max), 가슴근육(pectoralis major)이다. 오목부분은 신체의 분절점과 일치한다. 인체표면의 가변성은 근육의 긴장과 이완작용에서 비롯된다.

형은 물체를 생산한 내부힘들의 외적인 표현이며 위치와 방향을 제외한 사물의 공간적 면모이다. 어떤 대상의 진정한 형은 그 본질적인 공간적 특성(spatial features)에 의해서 형성된다.¹¹⁾ 또한, 전체 혹은 어느 한 부분에 상관없이 그 지배적인 방향을 강조한다. 인체형태 역시 고유의 힘과 방향감을 가진다. 여기에, 생명체로서 갖는 비가시적 에너지의 강·약과 흐름의 방향,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균형의 문제들이 조형작업시에는 시각적으로 조절되어야 할 것이다.

(2) 운동역학적 측면

신체동작은 일시적이며 공간적으로 전개되고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동작 또는

몸짓은 시각적 기술기능을 가지며 신체가 갖는 사회적의미에 있어서 언어적 표현특성을 보여준다. 표현행동이란 특징인이 또 다른 특징인을 향해서 하는 것이며 ① 선택적이며 ② 목적성이 있고 ③ 일관적 문맥을 탄다. 표현은 객관화된 정서이며, 정서와 다양한 감각들은 인간의 움직임결정한다. 움직임의 미학은 일반적으로 선(line)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움직임은 율동성이 있을 때 미(美)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리듬은 하나의 법칙이며 하나의 명백하고 결정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신체는 자신을 「반조」해 볼 수 있다. 신체는 「시각」과 「움직임」이 상호융합하여 작용하고 있다. 신체는 스스로 움직이며 동시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사방에 있는 사물들을 붙잡아 놓고 있다.¹³⁾ 의미없는 기계적 행동이든 표현행동이든, 인간적 전위성은 복식의 시각적 인상에 다양한 표정을 창출하는데 일조한다. 즉, 인체의 동역학적 성은, 복식에 미적 성격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조형요소 이외에 미적 성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이다. 또한 신체의 활동기능적 잠재성은 복식조형의 기능적 구조적 측면에서 적합성의 문제에 결부되는 사항이다. 신체의 동적 시스템으로는 ① 기본 움직임(굽히기, 펴기, 비틀기) ② 위치와 높이 변화에 관련된 움직임(서기와 그 변형, 기대기, 앉기, 무릎꿇기, 눕기), ③ 이동력 있는 움직임(걸기, 달리기, 도약하기)이 있다.¹⁴⁾ 인체중심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움직임의 방향은 무한하다. 인체 골격 관절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동작의 성격은 구부림, 펴, 외전, 내전, 중간회전, 측면회전, 뒤집기, 전도 등이 있다. 팔다리는 몸체를 향해 그것을 모으거나 퍼면서 공간을 취급한다.

10) Ching(F.-D.-K.), *Architecture: Form, Space & order*, N.Y., 1979, pp.50~51.

11) Arnheim(R.), *Art and Visual Perception*, Berkeley, 1974, pp.47~48.

12) Souriau(P.), *The Aesthetics of Movemen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Amherst, 1983, p.141.

13) 메를로·퐁티, op. cit., pp.290~291.

14) Bartenieff(I.) & Lewis(P.), op. cit., p.26.

P.Souriau에 의하면 ① 평균적 굴곡 작용의 법칙, ② 안정의 법칙, ③ 비대칭의 법칙, ④ 교대의 법칙 등 4가지의 자세의 법칙이 있다.

① 평균적 굴곡작용의 법칙

근육작용이 없다면 인체와 복식은 단지 중력법칙에만 종속될 것이다. 모든 착장된 의복의 원형은 중력법칙에 의해 결정되지만, 신체움직임에 의해 변형조정된다. Souriau에 의하면¹⁵⁾ 근육은 정상적 상태에서 어떤 울림(tone)을 간직하고 있으며 반대로 작용하는 두개의 근육(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자발적으로 상호균형을 맞추려 한다. 나아가 팔 다리의 균형적 위치는 경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각 지체는 본래의 「근원적 자세」(primary position)를 취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것은 자세에 있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편안한 감을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이점은 자세의 미학에 중요성을 갖는다.

② 안정의 법칙

행위에 대한 신체적 적응은 자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다. 이것은 최소한의 수고와 노력의 법칙 한도내에서이다. 신체의 하중에 대한 버텨 증가로 근육 에너지가 절감되며 안정감을 얻게된다. 최소한의 노력의 법칙에 따른 자세에서, 인체 근육의 능동적 저항은 때대에 수동적 저항으로 대체되는 강한 지지대를 형성한다. 즉, 우리의 신체는 가장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안정적인 균형을 보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성향이 있다.

③ 비대칭의 법칙

인체가 휴식을 취할 때는 비대칭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 불균등한 압력의 분배, 수고와 저항의 불균등한 분배를 초래하는 비대칭적 자세는 「근원적 자세」로 돌아가게 한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한 자세의 「지속성」이다. 불편함에 처해있는 사지

는 반사행위 즉 자기만족적 자동적 움직임에 의해 휴식을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④ 교대의 법칙

어떤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시키려면 그것과 상이한 자세와 교대시켜야 한다. 가장 편안한 자세라도 곧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즉, 근육의 긴장·이완, 이완·긴장의 교체작용이 끊임없이 지속된다. 리듬은 근육움직임의 항구적인 법칙이다. 움직임에 울동감이 창출되는 생리학적 요인은 ① 피로감을 회피하는 의미의 보상의 법칙, ② 자동운동적인 반복의 경향, ③ 습관의 효과가 있다. 사지는 끊임없는 작동인자에 의해 리듬을 취하게 되며, 울동적 움직임은 점차 습관화된다.¹⁶⁾

단순한 일상적 기계적 행동이든 불확정적 행동이든 표현적 행동이든 인간의 움직임은 울동적이며 역동성을 갖는다. 인체의 가동성과 활동기능적 잠재성은 복식의 조형요소이외에 또 하나의 미적 요소를 추가한다.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의복형태에 새롭게 추가되는 미적요소로는 흔들림, 휘날림, 당겨짐, 드레이프, 주름, 접힘이다.

2. 형태-공간으로서의 복식

형태는 감각세계 위에 인간사고 특유의 구조를 투사한다.¹⁷⁾ 단순한 원시적 형태의 복식이건 다변화된 문명속에서의 복합적 형태의 복식이건 또한 보호의 동기이건 표현의 동기이건 형태는 우리 삶과 본성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내고 개인적 체험을 확장하게 해준다.¹⁸⁾ 복식 형태의 특성은 사고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조형공간은 물리적 공간과 조형주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주체에 의해 사고되고 질서가 부여된 공간이다. 형태와 공간요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

15) Souriau(P.), op. cit., pp.14~15.

16) Ibid, pp.23~28.

17) Huyghe(R.), *L'Art et l'âme*, Flammarion, 1960, p.71.

18) Collier(G.), op. cit., p.64.

며 기능, 목적, 현재의 상황의 조건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복식은 단순히 삶의 필요에 따른 기능적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미적 조형대상으로서의 복식을 취급한다 할지라도 개념이나 뜻만으로 美의 영역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조형예술이 그렇듯이 조형주체의 전인격과 감성, 정신과 영혼이 투여되는 것이다. 여기서, 조형적 체험에 의해 알고 있는 지식, 즉 전인식(Prior Knowledge)은¹⁹⁾ 조형주체의 시각사고에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형태는 세계를 인간의 사고에 적응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모호한 공간세계가 갖는 외관의 질서화를 뜻한다. 복식은 평면공간이나 환영적 공간이 아닌 실제공간이다. 복식조형시에 가시적 표현형태가 나타나²⁰⁾ 환영적 공간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면적 공간(all-around-space)이며, 시각적이고 물리적 작업을 구성하는 요소, 체계, 질서, 촉각적이며, 근육운동 감각적인 측면을 지닌다. 빛 요소는 동작개념을 강화해주고 복식공간과 형태의 정서적 내용을 풍부하게 해준다. T. Munro는 미적형태를 ① 실재적 형태 ② 지향적 형태로 분류했다.²¹⁾ 전자는 정적 오브젝트의 형태, 동적 오브젝트의 형태, 순간적 진행의 성격을 갖는 행위 형태들이며, 후자는 조형작업의 본질이 어떤 종류의 시각적 또는 청각적 표시에 전적으로 한정되지 않는 일종의 의미체계로서 규정된다. 인체와 만난 복식은 정적, 동적, 행위적 형태의 특성을 지닌다.

일반적 형태의 타입으로서 역사적, 순환적 스타일이 있다. 복식은 공간조각이 인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복식형태는 신체공간의 특성을 반영한다. 신체윤곽은 그것을 지지하는 골격과 근육

에 의존한다. 의복의 윤곽은 신체구조로부터 오는 주된 윤곽을 나타낸다. 복식형태는 이상적(理想的) 신체 비례에 관련해, 문화적으로 미적 수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천해 왔다. 하나의 민족적 또는 문화적 그룹은 정신적 계통을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민족적 그룹은 어떠한 특정적 형태들을 선호한다. 즉, 인간의 다양한 초상, 또 인간의 작업조차도 시간, 물질과 공간을 형성하는 삶의 내적, 외적 방식과 함께, 민족의 모호한 저변에서 모습을 드러낸다.²²⁾ 인간의 회화 또는 조각적 표현에 있어서 초자연적 대상과 개념에 모든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던 시대에는 신체 비례에 있어서 왜곡된 표현을 낳았고, 현세긍정적 사고가 만연할 때는 인간적 비례에 충실하거나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표현되었다. 복식형태의 비례나 부분적 특징들은 이러한 사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특정한 양식하에 선호했던 특정적, 이상적 형태와 비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R. Barthes는 의상 체계를 ① 문자화된 의상 ② 영상화된 의상 ③ 입혀진 의상으로 분류했다.²³⁾ 조형대상으로서의 복식은 인체와 만남으로써 의미있고 특성화된 체계를 이룬다. 인체는 내부가 가득찬 덩어리인 반면에 복식은 내부가 비어 있는 형태다. 복식은, 평면이 확장된 신체라는 mass form을 둘러싼 공간으로서, 이때 이 공간은 볼륨을 갖는다. 볼륨은 덩어리에 의해 점유된 공간 또는 면에 의해 감싸인 공간이다. 형태는 볼륨의 주요한 특성이다. 복식형태는 신체 볼륨의 영역을 나타내는 평면들의 상호관계로 인한 형상으로 결정된다.

복식의 형태는 ① 구조적 형태 ② 비구조적 형

19) 프랭크 R 치섬, 제인 H 치섬, 세릴, 오웬스(오병권 역) 디자인의 개념과 응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p.66.

20) 우셔스·윙(유한태 역), 입체디자인 원론, 미진사, 1990, p.5.

21) Munro(T.), Form and Style in the Arts—An Introduction to Aesthetic Morphology—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1970, pp.31~35.

22) Focillon(H.) Vie des Formes, Quadrige /P.U.F. Paris, 1996, p.90.

23) Barthe(R.), Le Système de la Mode, Paris, 1981, pp.13~14.

태가 있다. 구조적 형태는 구조재를 통해서 형태가 유지된다. 복식소재의 재질적 특성에 의해, 구조재 없이도 형태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인체의 가동성을 고려할 때, 활동기능적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도록 재료가 선택되어야 하며 구조적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비구조적 형태는 인체라는 형태에 의해 형태가 유지된다. 이러한 경우, 복식형태는 복식이 둘러싸고 있는 내부 형태의 생김새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즉, 인간신체의 형태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표정으로 지각된다. 이러한 경우, 비구조적 복식은 선, 형태, 재질감, 색채 등의 조형요소 이외에 ① 율동적 표현(드레이프, 접힘, 주름, 다양하게 변화하는 윤곽선) ② 흔들림과 휘날림, 당겨짐이 미적성격을 특성화시키는 요소이다. 이때 이 두가지 요소의 감각적 효과는 복식소재의 중량이 그 변수가 된다.

T.-C. Flügel은 복식을 신체장식적 측면에서 ① 수직적(Verticale) ② 규모적(Dimensionnelle) ③ 방향적(Directionnelle) ④ 순환적(Circulaire) ⑤ 국소적(Locale) ⑥ 총체적의 6가지 성격으로 분류하였다.²⁴⁾ 이중 복식형태의 방향적 성격은 공간에서의 신체의 움직임과 방향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복식형태의 움직임은 신체 움직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신체 움직임 이외에도 바람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의해 복식형태에 움직임이 부여될 수 있다.

신체에 밀착된 비구조적 복식은 소재의 탄력성이 전제조건이 된다. 이것은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복식 표면에 긴장과 이완 작용이 교체되고 내부로 향해 압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촉각각을 경험한 지각자가 ① 동일한 상황의 관찰자가 되었을 때 ② 2차원적 이미지를 통해 동일한 상황을 지각했을 때 유사하고 순화된 「근육운동감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²⁵⁾ 신체는 자신에 대해 감응적인 동시에 가시성과 가동성이 있고, 지각체험시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III. 복식의 공간지각적 영역

1. 지각개념과 체계

지각이란 외부환경에 대한 의식적 표상(Conscious Percept)의 형성이다. 지각은 일반적으로 감각기관을 통해 입력된 감각자료, 예를들어, 자극의 밝기, 색, 그림자, 소리의 강약, 고저들을 바탕으로 그 자료를 체계화하고 의미있는 표상(表象)으로 만들어 의식에 제시한다. 지각수준의 정보처리는 ① 감각수준의 정보처리 결과 ② 기억된 정보(관찰자의 과거경험)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지각 현상을 규명할 때 감각의 개념과 실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지각과 감각 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왔지만 사실상의 구분은 모호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감각(sensation)은 유기체와 환경이 접촉하는 첫 단계로서 단순한 자극에 의해 비롯되는 단순하고 기초적인 경험이다. 외부감각자극 정보는 감각기관의 신경섬유로부터 충격패턴을 형성해 감각의 질을 신호화하여 지각중추에 전달된다.

지각은 감각보다 고차원적 과정으로서 기억(memory)의 과정과 과거경험이 개입되는 통합과정을 거친다.²⁶⁾ 이러한 감각, 지각, 기억, 사고, 학습 등을 포함하는 정신과정이 인지과정이며, 「인지적」이라 함은 정보의 수용, 저장 및 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정신적 조작을 의미한다.²⁷⁾ (그림 2)는 Crozier의 예술지각에 있어서 인지과정에 입각한 시지각 정보처리 과정을 보여준다.²⁸⁾ 눈에 입력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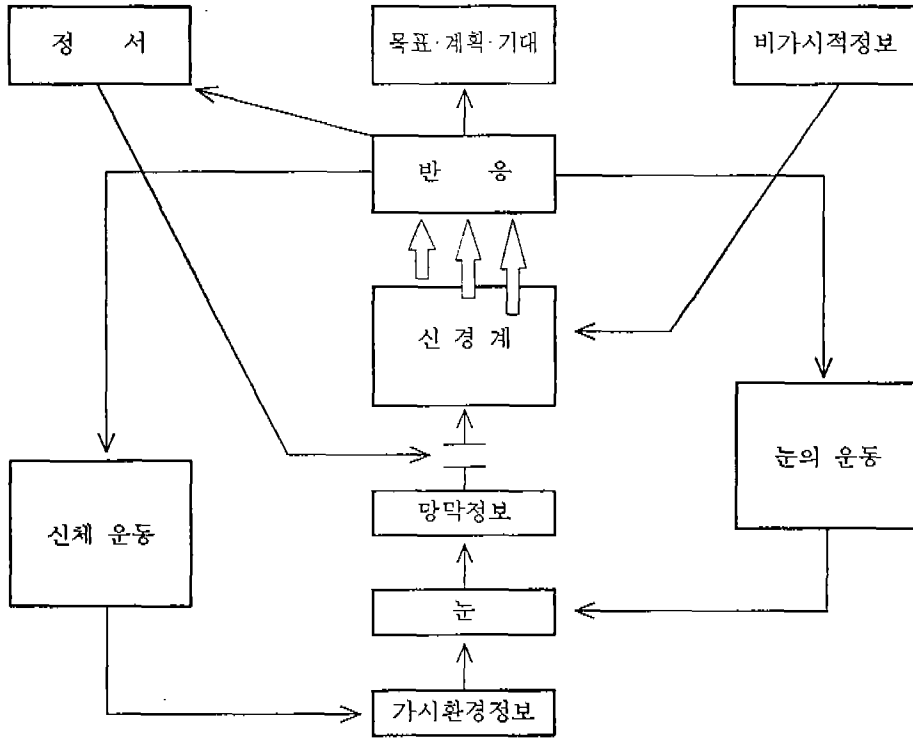
24) Flügel(T.-C.) *Le Rêveur Nu de la Parure Vestimentaire*, Edition Aubier Montaigne Paris, 1982, p.36.

25) Munro(T.), op. cit., pp.163~164.

26) Goldstein(B.E.) *Sensation and Percep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Belmont, 1994, p.2.

27) 루돌프·아른하임(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 미술의 인지심리학적 기원*, 이화여대 출판부, 1991, p.31.

28) Crozier(W.-R.) & Chapman(A.-J), *Cognitive Processes in the perception of Art*, Amsterdam, 1984, p.102.



(그림 2) 시지각 정보 처리 과정 개념도

정보가 대뇌에 이르러 판단하는 전과정이 시지각 과정이며 입력된 모든 정보는 정서적, 지적, 근육 운동적 반응으로 투사된다.

미적대상에 대한 인지과정은 ① 표층구조(감각 수준) ② 심층구조(관념, 철학)의 두차원을 거치며, 예술지각은 표층구조에서 심층구조로 지향하는 인지과정이다.

예술의 표현기능적 구성요소중 감각요소로서 ① 시각 ② 청각 ③ 촉각 ④ 미각 ⑤ 후각 ⑥ 근육 운동감각이 있다.²⁹⁾ 이중 복식조형과 관련된 감각은 시각, 청각, 촉각이며 복식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근육운동감각이 관련될 수 있다.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지각적 실체 즉, 형, 크기, 비례, 방향, 색채, 질감들의 대부분은 시각감과 관련되어 있다. 시지각은 ① 시지각적 대상 또는 지각 표

상 ② 지각자 ③ 시지각적 환경에 의해 성립되며 지각자는 지각과정에 있어서, 시지각 대상이 갖는 지각적 실체를 비시각적정보(개인적요소, 환경적요소)에 의존해 지각한다. 시지각의 원리는 지각대상을 떠난 빛이 망막에 도달하여 제공하는 망막정보를 두뇌가 조직화하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각과 기억 그리고 정신적 이미지는 두뇌세포간의 전기화학적 활동의 코드화된 결합의 결과이다. 즉, 환경정보가 전기적 부호로 코드화되어 두뇌에서는 부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독한다.³⁰⁾ 복식조형에 있어서 촉각과 청각은 시각감을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며, 특히 복식의 동적특성에 의해 개입되는 감각이다. 촉각은 우리의 외피에 대한 대상물의 접촉으로부터 느끼는 감각이다. 촉각은 어느정도 움직임을 지각하는데 봉사한다. 신체

29) Munro(T.) op. cit., pp.91~94.

30) Bloomer(C.-M), op. cit.,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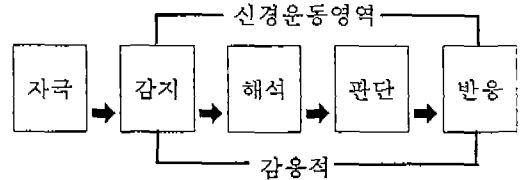
Goldstein(B.-E), op. cit., p.85.

에 대한 강력하거나 가벼운 접촉은 방향, 속도, 경로에 대한 지각을 가능케하며 움직임의 개념을 형성한다.³¹⁾ 근육 감각은 주로 우리 자신의 움직임을 조작하고 통제하며 시각과 결합되어 움직임의 미적성격을 결정하는데 이바지한다.

공간지각이 사람들의 위치와 그것들이 공간에서 갖는 상호관계에 대한 지각이라고 볼 때³²⁾ 복식에 있어서 공간지각은 지각자와 지각대상으로서의 복식과 인체가 공간안에서 갖는 상호관계에 대한 지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지각자는 공간관계에 대한 즉각적인 지각을 그의 지각과 함께 통합되는 이미지와 사고에 의해 해석하고 확장한다.

복식조형에 있어서 「지각자」는 「지각대상」또는 「착용자」인 동시에 「복식 조형행위의 주체자」이다. 이것은 복식조형만이 갖는 특수한 지각환경구조이다. 각각의 역할기능은 비독립적이다. 조형행위의 주체자는 지각자로서 또한 착용자로서의 지각체험을 갖는다. 착용자 역시 지각자로서의 지각체험을 갖고 있다. 모든 인간은 지각자이자 지각대상으로서의 착용자이다. 그러나, 조형행위의 주체로서는 합목적적이고 가설 검증적인 지각과정이 수행되는 세마(Schema)라는 정신구조를 통한³³⁾ 지각체험과 고등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조형행위시에 「지각자」로서 「착용자」로서의 지각체험은 미적체험으로서 「통각」(apperception)과정을 활성화시킨다. 신체는 신경운동의 세계와 가시적 세계가 상호 융합되었다. 즉, 신체는 가시적이며 자신에 대해 감응적이다. 신체는 보는 사람이 그가 보고 있는 것 속에 내존되어 있는 자아요 느낌의 행위(Sensing)가 느껴진 것(Sensed)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이다.³⁴⁾ 따라서 복식에 대해 두가지의 지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하나는 대자

적 평가이고 또 하나는 대타적 평가이다. 전자는 촉감과 근육 감각을 통해 맞음새 등 구조적 평가를 내린다. 후자는 형태, 색상, 재질감과 움직임에 따른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 즉, 조형적 평가를 내린다. 조형에 관련된 미적 체험에는 ① 지각 ② 통각(apperception) ③ 투사(projection)의 국면이 있다. 웹스터(Webster)의 정의에 따르면 통각은 「의미의 지각」이며 「지각자의 전(前) 경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과정」이다. 통각은 해석적 측면에 있어서, 새로운 지각표상을 前기억, 습관, 욕구, 신념 등 지각자의 기본 축적사항에 맞추는 활동이다. 그리고 인식과 추론은 그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며 통각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많은 감각 자극에 대해 선택적으로 특별한 주목을 하게 된다. 지각자는 선택된 자극에 대해 자신의 능력과 경험에 관련해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그의 기존인격구조(personality structure)에 짜맞춘다. 미적 통각은 때로는 강력하게 지적이지만, 외부세계에 관한 진실추구나 지적인 추론보다는 오히려 감각적 자극에 이끌려 반응이 환상적일 수도 있다. 여기서 미적 환상은 개인의 인격구조에 작용하는 외부감각자극에 의해 유도된다는 점에서 자유환상과는 구분된다(그림 3).³⁵⁾



(그림 3) 미적체험 개념도

2. 복식조형의 지각적 특성

31) Souriau(P.), op. cit., p.110.

32) 신명희, 지각의 심리, 학지사, 1995, p.110.

33) 루돌프 · 아른하임, op. cit., p.443.

34) 메를로 · 폰티, op. cit., p.291.

35) Munro(T.). op. cit., p.20.



(그림 4) E. Delacroix,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루브르미술관, 파리, 1830



(그림 5) 승리의 여신, 니케 신전, 아테네, B.C. 5세기

(1) 시각적 역동성과 운동반응지각

조형활동의 주체인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식의 수준에서 생겨나는 과정에 의해서 조정되는 「지각적 추론」을 통해서 자신의 조형 작업을 완성해 나간다. 지각적 추론이란 공간, 형, 크기, 색채, 운동과 같은 감각적 성질 사이의 관계 조작을 포함하는 창조적 작업을 의미한다.³⁶⁾ 조형에 있어서 운동지각과 관련된 감각은 시각각, 촉각각, 근육운동감각이며 촉각각, 근육운동 감각들은 시지각을 완성시킨다.

지각에는 정적 측면 이외에 역동적 측면의 지각이 있다. 역동적 측면의 지각은 자극에 의해 전달되는 방향성있는 긴장이 유도된다.

역동성은 ① 시각적 ② 근육감각적(Kinesthetics)으로 지각된다. 역동성은 회화나 조각같은 부동적 대상, 춤, 연극, 행위예술과 같은 동적대상 모두에

게서 지각될 수 있다. 부동적 대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 드라크로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상(그림 4)이나 대부분의 그리이스 조각상들은(그림 5) 착장된 인물이 부동적 공간안에서 정지된 상태이지만, 의복의 드레이프나 주름의 방향, 굴곡 작용에 의해 내적 충동이 발산되는 듯한 역동성이 지각된다. 역사적으로 권의형식은 인체의 양감과 움직임을 극대화하기에 적합했고 그러기 위해 주름표현이 매너릭했다. 시각적 역동성이 지각된다는 것은 경험론적이다. 즉 「연상」이라는 수단을 통해 관찰자가 지각대상에 운동을 부여하는 것이다.³⁷⁾ 연상은 대상 그 자체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주름의 방향과 소재의 재질감, 주름 덩어리의 볼륨감 등 형, 방향, 밝기 등에 기초한다. 의복의 선적 특성, 즉 굽기, 각도, 방향, 경로, 반복성에 의해 시각적 역동성이 지각되며, 과거의 지각

36) 루돌프 · 아르하임(김재은 역), 예술심리학(下), 이화여대 출판부, 1992, p.411.

37) Ibid, 예술심리학(上), p.111.



(그림 6) I. Miyake, The Second Detail, 1993.

체험에 의한 통합된 이미지와 사고에 의해 해석된 결과다.³⁸⁾

부동적 대상이 제공하는 운동의 인상은 환영적이다. 2차원적 이미지로 표현된 의복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영상에서 운동의 강도는 착용자의 자세, 근육의 긴장상태, 머리카락의 흔들림, 옷주름의 특징으로부터 지각된다. (그림 6) 인간신체의 조형적, 동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뛰어난 I. Miyake는 창작의 기본틀을 ① 과거와 미래(Past & Future) ② 동양과 서양(East & West) ③ 신체와 의복(Body & Cloth)으로 제시하며, 그의 의상이 인체의 움직임 안에서 완성되고 인체로 인해 생명력과 활력을 얻는다고 한다.³⁹⁾ 시각적 역

동을 수반하는 특수한 지각인자는 「운동」이며 운동을 제공하는 원리는 긴장, 수렴, 확산, 중첩, 방향전환이다. 우리는 지식, 경험, 기억에 의해 지각 형태에 해석을 부여한다.

움직이고 있는 대상에서 지각되는 형태가 지각자의 과거 경험과 일치할 때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킨다. 근육운동지각의 단서는 근육적 긴장과 압력이다. 근육운동 지각적 반응은 행위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생길 수 있으며 신체적 공명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동시에 움직이는 대상에 의해서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어떤 종류의 근육적 감정을 자신의 신체 속에서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근육운동 감각적인 반응이며, 로르샤하는 이러한 것을 M반응으로 규정한다.⁴⁰⁾ M반응에는 어느정도의 관심과 의식적 동기를 요구하는 통각작용의 과정이 포함된다. 로르샤하가 운동의 감정을 근육운동 감각적 감정이입으로 본 반면, 아르하임은 시지각의 내재적 특징으로서 간주한다.⁴¹⁾

(2) 깊이와 거리의 지각

3차원 공간에 대한 지각은 전체적인 공간틀에 대한 지각속에 함께 통합되어 있는 다양한 이질적 정보에 의존한다.⁴²⁾

실제 대상물은 3차원적 공간에 존재한다. 대상물의 시각적 이미지는 2차원적으로 투영된 표면에 제한된다. 이때 대상물의 3차원적 형태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적 자극은 ① 조직과 짜임새의 변화도 (texture gradients) ② 선투시법 (linear perspective) ③ 명암법 (patterns of shading)의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⁴³⁾

자극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고

38) 신명희, op. cit., p.127.

39) Muthesius(A.) & Krieger(S.), *Issey Miyake*, London, 1995, p.16.

40) Furrer(A.), *The Meaning of M in the Rorschach*, in A Rorschach Reader, N.Y. 1960, pp.309~317.

41) 루돌프·아른하임(김재은 역), op. cit., p.124.

42) 신명희, op. cit., p.116.

43) Todd (J.-T.), *The Visual Perception of Three-Dimensional Structure from Motion*, in Perception of space and Motion, San Diego, 1995, p.201.

찰하는 방법은 ① 작은 단위를 큰 형태로 정리 통합하는 지각적 「조직」과 ② 형태를 의미 있는 대상으로 지각하는 「인식」이 있다.⁴⁴⁾ ①② 상호작용을 통해 지각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조직된 실체로서 인식된다.

시지각적 매커니즘은 복식조형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계슈탈티즘적 원리는 착용자의 개성을 극대화 하거나 문화적 수용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적 복식공간을 환영적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즉, 복식공간의 가시적 표시형태를 통해 착각적 깊이, 돌출, 후퇴, 확대, 축소, 역동성 등을 연출함으로써 어떤 기대되는 목적과 효과에 도달하게 된다.

계슈탈티즘은 감각과 지각의 관계성에 관련해 표명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의 하나다. 이것은 지각자와 조형주체에게 대상으로 전체로서, 조직체로서 접근하도록 하고, 이러한 전체의 요소들간에 근본적인 구조적 관계성을 창조하도록 한다.

이러한 계슈탈트의 법칙으로는 ① 전환, 도치의 법칙 ② 전경-배경의 법칙 ③ 분리의 법칙 ④ 좋은 형태의 법칙 ⑤ 계급화의 법칙이 있다.⁴⁵⁾

이미지를 이해하고 해독하는 습관과 조건화는 문화적. 개인적 요인에 의해 기억과 함께 우리의 반사작용에 수정을 가하며 의미없는 이미지에 잠재된 인식력을 투사한다. 이것이 지각과정에 역할 작용이 현저한 「전경험」이며 또한 이미지에 대한 관심과 선별적 태도 및 의도는 「동기」로서 지각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IV. 복식 조형의 특질

1. 기본개념과 원리

복식 조형은 시각요소를 물리적, 개념적, 지각적 일정한 질서에 따라 조직하는 것으로서, 복식

의 형태와 공간요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기능, 목적, 현재의 상황조건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복식조형의 물리적 작업을 구성하는 요소, 체계, 질서는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복식전체로서의 시각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

(1) 복식은 전면적 공간(all-Around-Space)으로서 공간조직이 인체와 관련해서 이루어진다. 복식이 갖는 공간효과는 인체의 물리적 특성 및 정신, 심리적 체계와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 획득된다. 물리적 특성이란 인체 형태의 크기, 윤곽, 표면구조, 탄력, 부피, 중량, 운동력, 질감, 색채와 같은 시각, 촉각, 근육운동감각과 관련된 요소들과 위치, 방향, 깊이와 힘의 작용, 질량의 영향, 에너지, 움직임의 상관요소가 내적인 상호 관계를 좌우하는 측면이다.

정신, 심리적 체계는 지각 및 통각과정을 통해 얻는 체험, 기억, 상상, 충동, 정서, 지향성 등의 비가시적 요소들이 조형과정에 혹은 조형평가에 자발적으로 개입되는 국면을 말한다.

(2) 인체가 mass인 반면에, 복식은 내부가 비어 있는 3차원 형태다. 따라서 복식은 외부로부터 「구조」로 지각되며, 인체에 대한 적합성은 내부의 빈공간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적합성이란 조형작업시에 조형요소와 원리의 조작과 적용이 적절해야 하는 미적 측면과, 복식형태가 신체구조에 잘 관련되어야 하는 구조적 측면, 신체의 물리적 작동과 기능수행 등을 기능적 성능을 허용해야 하는 기능적 측면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복식착용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함을 의미한다.

(3) 복식조형에는 복식 소재가 입체적 형태로 되는 과정에서 2차원 공간과 3차원 공간개념의 신

44) Goldstein(B. -E.), op. cit., p.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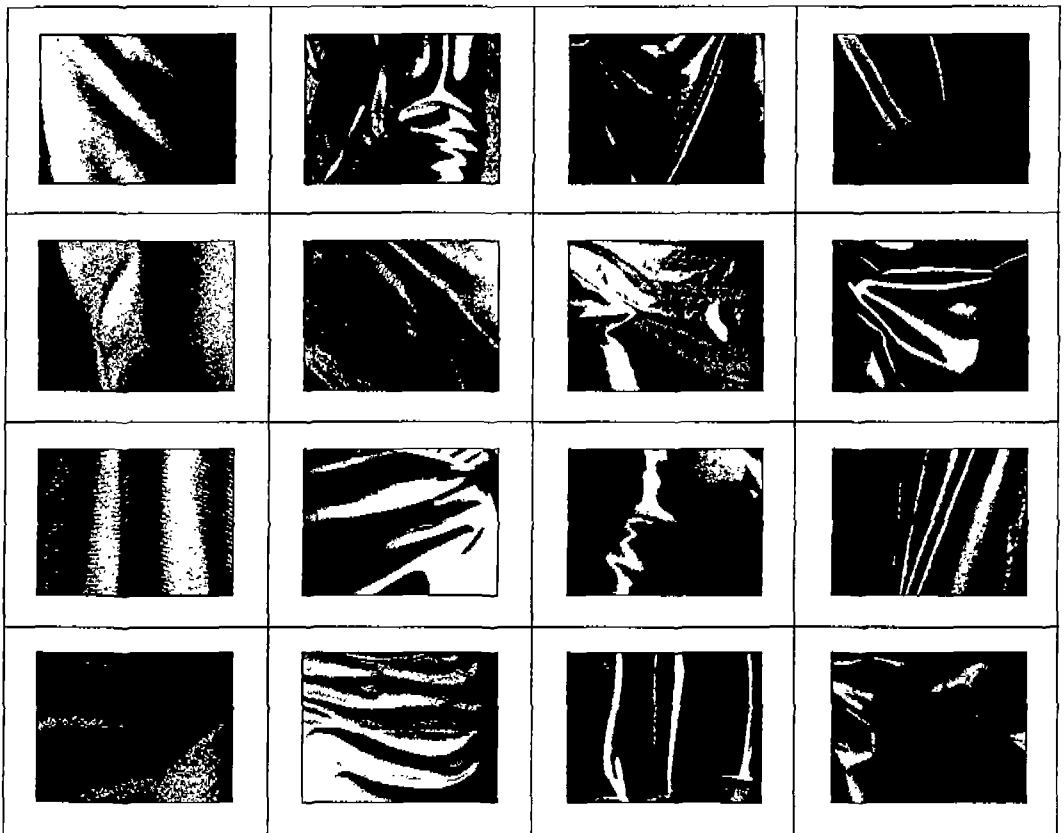
45) Quarante(D.), *Éléments de Design Industriel, Paris*, 1994, pp.207~233.

속한 전환력이 필요하다. 신체구조에 잘 관련된 복식은 2차원적 평면에서 볼륨으로의 전환에 구조적 맞음새를 위한 절개선이 개입되므로, 복식구축의 테크닉이 요구된다. 절개선의 합리적 위치선정과 경제적 사용은 시각적 간결성을 연출한다.

(4) 복식은 인체 형태의 볼륨부분에 의존해 지 지된다. 복식에 대한 볼륨부분의 지지도는 소재의 ① 탄력성 ② 중량과 상관관계에 있으며 지지력이 약할 때에는 기능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복식조형시에는 기능적 적합성과 미적 가치의 획득을 위해 볼륨부분과 오목부분의 힘의 균형에 대한 시각적 조절능력이 요구된다.

(5) 복식은 인체위에서 비로소 「Mobile and Solide Design」⁴⁶⁾으로의 성격을 갖는다. Munro는 이것이 Mobile and Surface Design과는 상이한 것으로 규정했지만 복식조형의 경우 후자의 성격도 일면 지니고 있다.

복식의 표면은 신체의 가동적 특성에 의해 변화 무쌍한 굴곡이 형성된다. 이것은 주름, 드레이프, 접힘 등이며, 신체의 힘과 에너지가 「선」이라는 가시적 요소로 전환된 것이다. 복식표면 굴곡의 깊이, 길이, 방향, 경사도 등은 복식소재의 재질적 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식조형의 미적평가에는 표면 굴곡의 유동적인 선적 표현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7) 이것은 이동과 동작의



(그림 7) 복식 표면굴곡의 다양한 인상

46) Munro(T.) op. cit., p.197.

반복과 변화에 의해 울동감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2. 공간조직

공간 조직은 하나의 형태가 짜여지는 방식, 또는 여러 개의 형태들이 배열되고 배합되는 방식에 관한 것으로서 「구성」을 의미한다.⁴⁷⁾

조형은 물질의 맹목적인 나열이 아니다. 복식조형도 마찬가지이다. 원시 사회 속의 매우 단순한 복식도 의미없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형의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고 심오할지라도, 조형으로서의 복식은 인간의 감각과 지각의 총체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각적 사고의 산물로서 그 의미가 크며 이러한 시각적 사고의 과정에서 미적가치를 부여하는 조형경험이 인지과정에 다시 투입되면서 공간을 새롭게 조절하고 조직하게 된다.

복식조형에 있어 공간조직은 인체를 대상으로 복식소재를 매개로 해, 어떤 조형질서를 통해 공간-인체간에 전체로서의 새로운 시각적 관계를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공간조직은 직관적 혹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⁴⁸⁾ (그림 8)에서 (그림 30)까지는 인체와 조형 단위가 만나 새로운 공간을 조직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조형 방식을 보여준다. 즉, 공간안에 형과 형태를 배열, 배치, 조직하는 기본방식으로서, 어떤 종류의 형태를 복식공간으로서 수용할 것인가? 인체의 어디에,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전체 구성의 맥락속에서, 공간-복식-인체의 상호관계속에서, 모호한 외관에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여, 조형요소나 체계가 복식 전체로서의 합목적적 시각적 관계를 가질 것인가를 해결해 나가는 지각경험의 과정을 밝는다.

(1) 선적 요소에 의한 공간조직

선적 요소에 의한 공간조직은 위치와 방향만 갖는 개념적 요소로서의 선에, 두께를 부여함으로써 시각요소화 하여 그것을 기본 조형요소로 설정한다. 선은 두께, 연속성, 진행방향, 경로, 밀도, 외곽 부분의 특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⁴⁹⁾ 크기는 직선과 곡선으로 대별하며 그에 따라 선조형의 성격을 직선조형과 곡선조형으로 구분한다.

곡선조형은 신체의 곡면과 윤곽선에 잘 조화가 이루어지므로 직선조형에 비해 안정되고 부드러운 정서가 표출되나(그림 8, 9) 선의 성격과 배열 방식에 따라서는 울동감, 힘, 역동성이 감지될 수 있다(그림 10, 11, 12). 신체에서 근원하여 공간속으로 진입하거나 공간속에서 태동하여 신체와 만나 신체내부로 진행되는 선의 배치와 배열은 물질의 이질감을 극소화 할 수 있으며(그림 13, 14) 통일된 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공간친화적 복식조형이며, 「쾌」의 정서에 이바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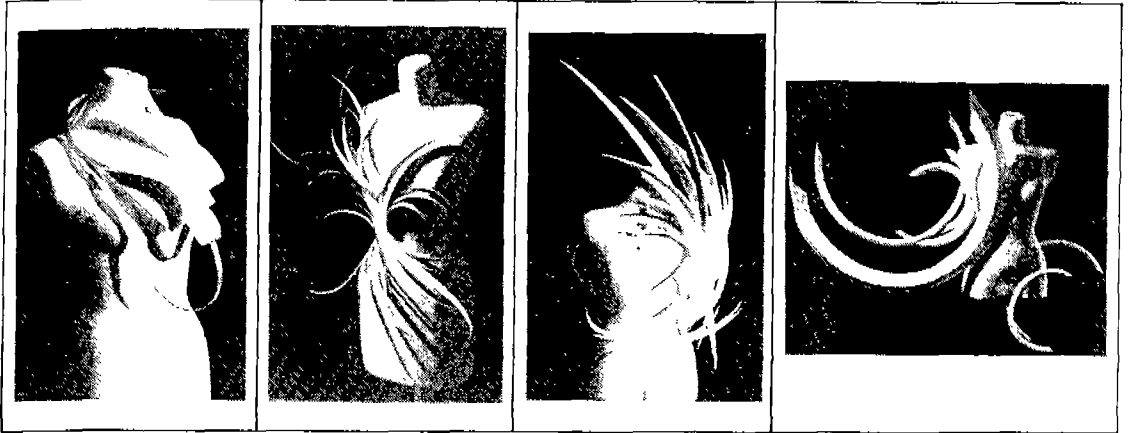
단위 요소의 중첩에 의해 시각적 중량감과 부피감이 부여된 조형이나 둔탁하고 급격하게 각이진 직선조형은 인체 형태가 지니는 시각적 힘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힘의 균형과 조화를 시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그림 15, 16) 안정된 조형에 비해 형태-공간으로서 지니는 강력한 역동적 힘이 지각되는 적극적이고 표현적인 공간이 형성된다. 직선요소는 인체윤곽선과 상반된 성격을 지니므로 직선요소가 인체에 배열, 배치되는 방법을 조절함으로써 즉, 선적요소의 일부가 인체의 윤곽선이나 곡면을 따르도록 할때 (그림 17) 「잘못 놓여진 오브제」로서의 위험은 모면할 수 있다.

(그림 18)은 선의 특성이 빈번한 굴곡작용에 있다. 이것은 지각자에게 촉각감에 대한 통각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그림 19)은 날카로운 각을 이루며 진행되는 선적요소로 인해 대조적인 촉각감이 유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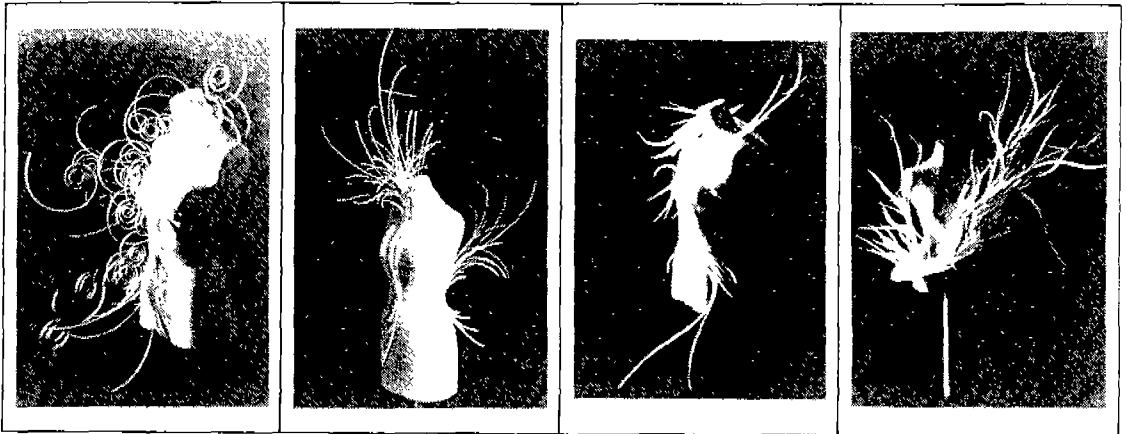
47) 우셔스·윙, op. cit., p.14.

48) Collier(G.), op. cit., pp.7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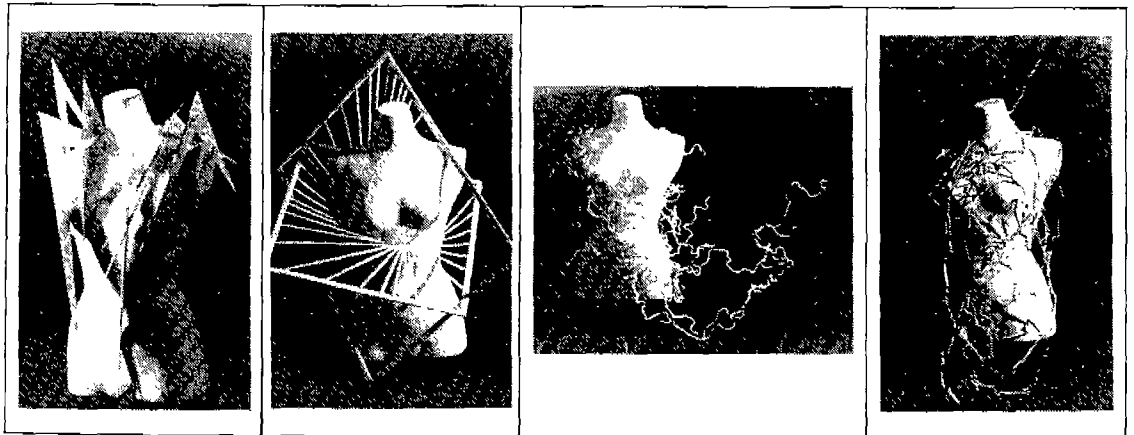
49) Davis(M.-L.), op. cit., pp.47~51.



(그림 8) 곡선에 의한 공간 조직 (그림 9) 동체를 감싸는 곡선 조형 (그림 10) 방향성이 제시된 반복적 곡선 조형 (그림 11) 인체 주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간조직



(그림 12) 율동적 곡선의 반복에 의한 공간 조형 (그림 13) 신체에서 근원한 완만한 곡선의 종횡면 배열 (그림 14) 산발적 방향감을 갖는 곡선에 의한 공간 조직 (그림 15) 선의 반복적 배열에 의해 부피감이 부여된 공간조직



(그림 16) 예각적 직선에 의한 공간조직 (그림 17) 직선에 의한 공간조직 (그림 18) 파상적 곡선에 의한 공간조직 (그림 19) 지그재그선에 의한 공간조직

(2) 형과 형태에 의한 공간조직

인체공간은 형태요소들에 의해 둘러싸이며 새로운 질서를 갖는 공간으로 조직된다. 개념적 조형요소로서의 면은 길이, 넓이는 있으나 높이, 깊이가 없다. 이것은 선에서 비롯되며 양의 외부한계를 나타낸다.

면이 면 자체의 방향이 아닌 일정한 방향으로 연속되어 연속면을 이루거나 (그림 20), 면에 높이 혹은 깊이가 부여되든지, 면이 입체형태와 만나면 (그림 21) 볼륨으로 지각될 수 있으며 3차원적 공간으로 전환된다.

면의 인체를 에워싸면 볼륨화 되고 외부표면은 공간을 양적으로 규정한다(그림 22). 그리고 인체는 공간안의 공간이 된다. 형은 인체를 둘러싸면서 내부/외부의 개념이 형성된다. 복식형태는 인체를 둘러싸는 평면들의 상호관계로 인한 형상으로 결정된다. 복식조형의 형과 형태에 관련한 지각은 그것의 내부구조, 축, 외부 압력, 내부 압력의 균형, 앞 뒤 전체의 개념에 대한 지각이다. (그림 23)은 인체의 구조, 윤곽선, 곡면과 잘 관련된 공간조직을 보여준다. 이것은 면이 인체형태위에 부가적으로 배치된 경우며, 새로 조직된 부가적 공간이라 할지라도 인체의 연장된 일부로 지각되는 일체감을 이룬다. (그림 24) (그림 25)는 인간적 비례의 근간이 되는 분절점에서 공간조직이 이루어졌으며 분절점은 복식의 특징적 실루엣과 개성 표현의 출발점이 된다. 목, 손목, 허리, 발목 등은 신체의 분절 점이자 원통형의 등근 형태적 특징을 갖는데 전통적으로 장식적 관심이 집중되는 부위로서 순환적 성격을 갖는다.⁵⁰⁾ 어깨 관절 접합부는 사방식으로서 팔의 회전운동이 가능하다. (그림 26)은 팔의 움직임에서 비롯될 수 있는 비가시적 곡선이 등근형태의 어깨 분절점에서 시작되어 단위형태의 반복적 방사상 구성을 통해 전개되고, 외곽선은 와선형을 이루면서 공간 속 깊이

사라진다. (그림 27)는 조형 단위의 중첩, 방향 전환의 방식을 통해 자유로운 곡선 방향으로 배열이 이루어지는 선적(linear)인 공간조직을 보여준다. 이 경우는 인체곡선에 비해 커브가 급격한 곡선구성으로서 역동적 울동감이 발산된다.

동체 주위를 순환하는 선과 면은 인체 형태의 한 조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그림 28). (그림 29)는 인체형태와 기하학적 다면체가 상충(collision), 관입된 것으로 지각되며, 인체형태와 기하학적 형태가 지나는 대조적 형태감각에 의해 서로의 특성이 상호 상승적으로 부각된다.

(그림 30-a)와 (그림 31-b)는 인체와의 구조적 맞음새를 고려한 공간조직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 기능적 측면의 조형에서는 복식의 인체와의 적합성은 내부의 빈공간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구성 기술은 인체의 활동기능적 잠재력을 허용할수 있도록 복식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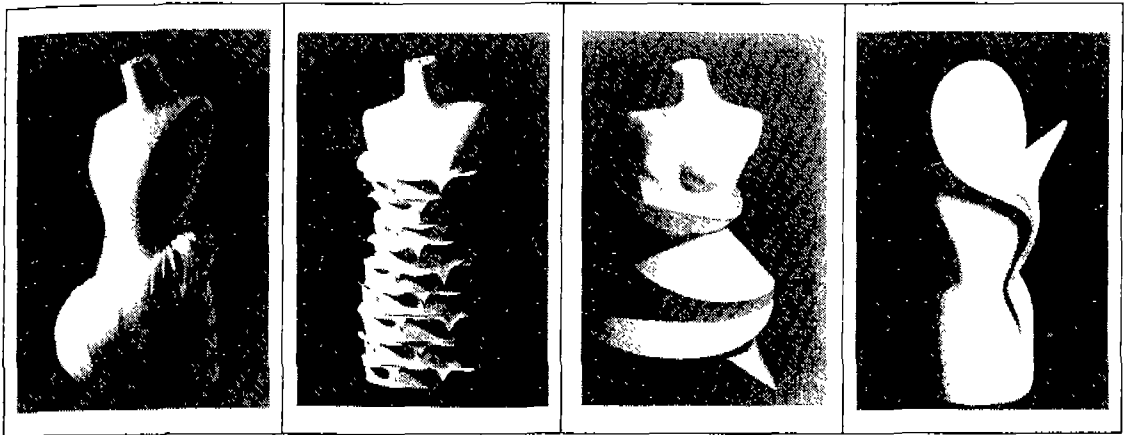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복식조형의 공간적 특질에 관한 1차적 기초연구로서, 조형으로서의 복식의 성격을 공간-형태적 차원에서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지각원리를 통해 조형의 특질을 규명하여, 그것을 토대로 복식조형공간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기초적 원리를 제공함에 의의를 둔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조형의 공간적 체계는 공간, 인간, 복식의 3요소로 성립되며, 이것을 기초로 복식조형 특유의 지각환경 구조가 성립된다. 따라서, 복식조형은 인체의 조형적, 동역학적 특수성의 인식이 요구되며, 공간전반과 형태-공간으로서의 복식의 개념과 의미를 파악하여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50) Flügel (J.-C.). op. cit., p.36.



(그림 20) 연속면에 의한 공간조직

(그림 21) 면조형 단위의 반복적 배열

(그림 22) 인체를 에워싸므로써 입체화된 공간

(그림 23) 인체의 수직적 곡선의 흐름에 조화된 면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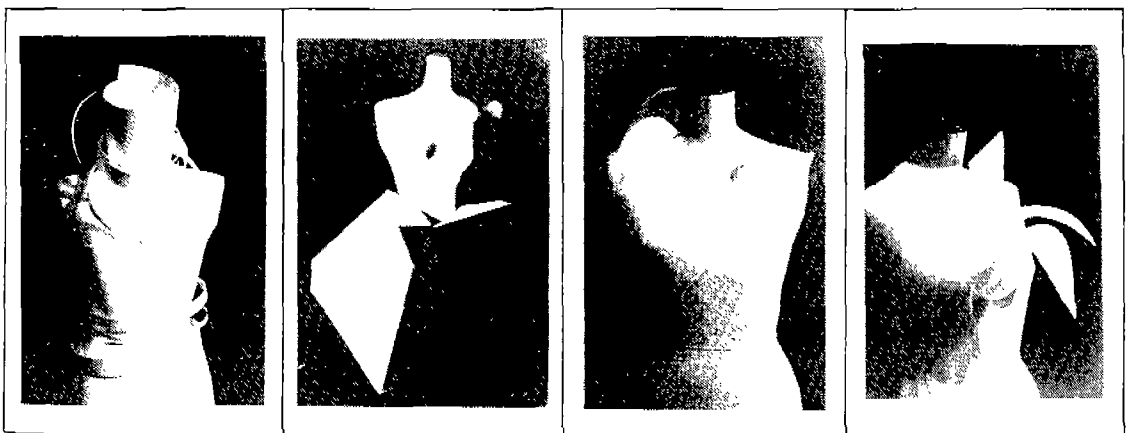


(그림 24) 인체 분절점에 조직된 면조형 단위

(그림 25) 인체 동체와 유사한 등근면에 의한 공간조직

(그림 26) 면단위 형태의 반복적 방사성 구성

(그림 27) 면조형 단위의 중첩과 선적배열에 의한 공간조형



(그림 28) 인체의 환조성을 강조하는 선과 면에 의한 공간 조직

(그림 29) 인체와 기하학적 다면체의 상충적 공간 조직

(그림 30-a) 인체와의 구조적 맞음새를 고려한 공간조직

(그림 30-b) 인체와의 구조적 맞음새를 고려한 공간조직

둘째, 복식의 형태와 공간조직은 인체라는 구조적 근거에서 출발한다. 복식조직의 미적표현성은 신체의 감각적 체계와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며 신체의 운동에 의해 완성된다.

특히, 시각적 역동성과 운동반응지각의 체험과 원리는 조형과 조형평가지 매우 유효하다.

셋째, Chapter IV에서 제시된 복식조직의 특징적 원리는 시지각적 조형체험에 근거한 것이며 이러한 사고내용들은 새로운 공간계획과 조직에 있어서 비가시적 정보로서 인지과정에 투입되고 통각 과정을 활성화 시키는 동시에 미적 판단에 작용을 가한다.

조형효과는 시각적 인지과정에서 조형대상에 관한 통합적 정보를 근거로해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판단을 내리며 또한 조형요소나 체계 질서는 복식전체로서 시각적 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색채와 재질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며 과학적 Data에 기초를 둔 조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속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루돌프 아른하임(김정은 역). 시각적 사고-미술의 인지심리학적 기초-이화여대 출판부, 1991.
- 루돌프 아른하임(김재은 역). 예술심리학 상·하(Toward a Psychology of Art). 이화여대 출판부, 1992.
- 메를로 퐁티(오병남 역). 현상학과 예술 (Phenomenology and Art). 서광사, 1983.
- 신명희(편저). 지각의 심리. 학지사, 1995.
- 우셔스 윙(유한태 역). 입체디자인 원론. 미진사, 1990.
- 프랭크 R. 치섬, 제인 H. 치섬, 세릴 H. 오웬스(오병권 역). 디자인의 개념과 응용.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 Argyle(M.) *Bodily Communicati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N.Y., 1975.
- Arnheim(R.), *Art and Visual Perception*, Berkeley, 1974.
- Bartenieff(I) & Lewis(D). *Body Movement Coping with the Environment*, N.Y., 1990.
- Barthe(R.), *Le Système da la Mode*, Paris, 1981.
- Bloomer (C.-M.), *Principles of Visual Perception*, N.Y., 1976.
- Ching (F.-D.-K), *Architecture : Form, Space & Order*. N.Y., 1979.
- Collier (G.), *Form, Space and Vision*, Englewood Cliffs, N.J., 1963.
- Crouch (J.-E.) & McClintic(J.-R).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U.S.A. 1971.
- Crozier(W.-R.) & Chapman(A.-J) 편집, *Cognitive Processes in the Perception of Art,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inking about depiction by Pratt (Francis)*. Amsterdam, 1984.
- Davis(M.-L.). *Visual Design in Dress*, London, 1980.
- De Saussure(M.). *Design : la dynamique des formes*. Dessain et Tolra, Paris, 1973.
- Epstein(W.) & Rogers(S.), *Perception of Space and Motion*. Academic Press, San Diego, 1995.
- Flügel (J.-C.). *Le Rêveur Nu de la Parure Vestimentaire*. Edition Aubier Montaigne, Paris, 1982.
- Focillon (H.), *Vie des Formes*. Quadrige /P. U.F. Paris, 1996.
- Furrer(A.), *The Meaning of M in the Rorschach*, in A Rorschach Reader, N.Y., 1960.
- Goldstein(B.-E.). *Sensation and Percep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Belmont, 1984.
- Huyghe(R.). *L'Art et l'âme*. Flammarion, Paris, 1960.

- Munro(T.). *Form and Style in the Arts.* - An Introduction to Aesthetic Morphology -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Cleveland, 1970.
- Muthesius(A.) & Krieger(S.), *Issey Miyake.* London, 1995.
- Panero(J.) & Zelnik(M.). *Human Dimension and Interior Space.* Whitney Library of Design. N.Y., 1979.
- Pole(David). *Aesthetics, Form and Emotion.* St. Martin's Press, N.Y., 1983.
- Quarante(D.). *Eléments de Design Industriel,* Politechnica 2^e Edition, Paris, 1994.
- Souriau(P.). Manon Souriau 역. *The Aesthetics of Movemen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Amherst, 1983.
- Stevens(P. -S), *Les forms dans la nature,* Seuil, Paris, 1978.

ABSTRACT

A Study on the Spatial Property of Dress Modeling - I

This study is the primary basic study about the spatial feature of modeling of Fashion Design. Then, this researcher lays significance in

establishing the basic system about the character of dress and its ornaments as modeling in spatial-formal dimension, examining the feature of modeling closely through perception principle and offering the basic principle to plan and organize the modeling space for dress and its ornaments on the basis of it.

To generalize the findings is as follows :

First, the spatial system of modeling for dress and its ornaments is made with 3 elements such as space, human beings and dress and its ornaments.

Second, the form of dress and its ornaments and the spatial organization start from the structural basis which is human body, and the sensible system of body is made through interaction, but the aesthetic expression is completed by the moment of body.

Third, the characteristic principle of modeling for dress and its ornaments which was suggested in Chapter IV is based on the visuo-perceptual modeling experience, and these thinking contents are inputted in cognition course as the invisible in formation in the new space plan and organization and activate the apperception course and aim at the action about aesthetic judgement.